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

도덕과 종교

글 박이문(연세대 특별초빙교수·철학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에게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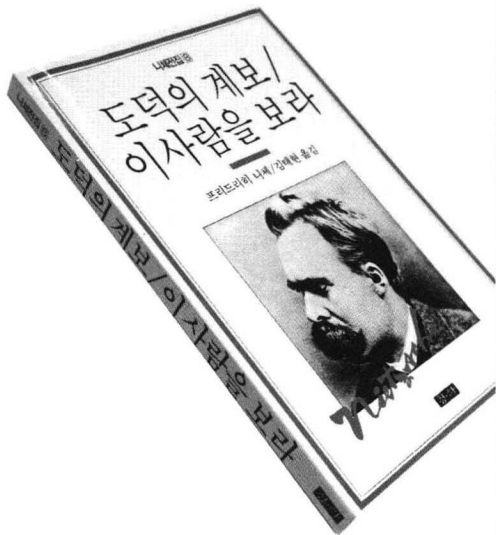
이 유명한 명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구절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다른 동물과 같이 자연적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존재이지만, 태어난 직후부터는 다른 동물과 달리 규범이라는 관념적 족쇄가 채워진 문화적 존재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인간은 숲한 종류의 다양한 규범 즉 인위적 구속에 묶여있다. 모든 규범은 곧 일종의 족쇄이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폐기될 수 있는 대부분의 규범들과는 달리 도덕적 규범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적 삶에 있어서 도덕적 규범의 필요성은 마치 모든 동물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욕망 충족의 필요성처럼 인간적 존재의 필요조건이다. 모든 규범이 일종의 족쇄라면, 인간에 있어서 도덕적 규범의 족쇄만큼 더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족쇄는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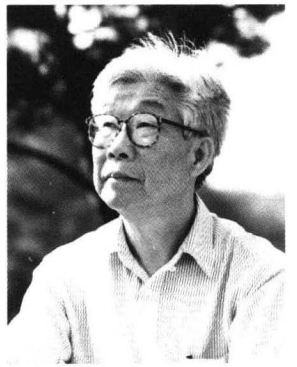
대체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복지가 각자 다른 삶의 복지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동 규범이다. 내용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는 일반적 명제를,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약자를 도와라” “남을 살해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무고한 자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몇 가지의 보다 구체적인 도덕규범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왜 나는 나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그러한 규범을 지켜야 하며, 만일 그런 근거가 그것이 갖는 권위에 있다면, 그 권위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전통적 대답은, 유대·기독교로 대표된 서양종교에서는 모세의 십계명이 보여주듯이 창조주의 의도에서 찾았고, 힌두교·불교·유교·도교로 대표되는 동양의 형이상학적 틀에서는 브라만, 공, 천명 등으로 불리는 초월적 우주의 원리 등과 같은 것에 의해 외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근대 이후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는 행동의 선택” 혹은 “보편적인 객관적 법칙으로 채택될 수 있는 나의 주관적 준칙에 따른 행동의 선택” 등의 명제를 가장 합리적인 도덕적 규범의 예로 들 수 있다면, 이러한 정당화에 의해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관, 그 가치관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와 권력이 유지되어 왔다.

니체는 도덕규범의 위와 같은 전통 및 근대적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구적 사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도덕적 규범과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류의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꾸며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주에는 구체적, 감각적 인식 대상으로서의 현상만이 있을 뿐 평가 대상으로서의 비가시적, 도덕적 가치는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선악, 옳고 그름의





● 이 글을 쓴 박이문은

서울대 불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 남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서울대의 초청교수를 거쳐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당신에게 철학이 있습니까?)《과학의 도전, 철학의 응전》등의 철학 서와 《눈에 덮인 찰스 강변》《나비의 꿈》《공백의 그림자》등의 시집이 있다.

관점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도덕적 규범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속박하게 되었는가?

니체는 어원학을 동원해서 사회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원래 인간의 세계에서도 개개인과 그들의 모든 행동은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 강자와 약자, 능동적인 자와 반동적인 자, 명령을 내리는 자와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노예, 채권자와 채무자, 양반과 상인, 주인과 하인, 귀족과 천민, 부자와 빈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소수 엘리트와 절대 다수에 속하는 대중 등 두 가지 부류의 인간과 그들의 행동만이 있고 그것들의 가치는 실용적 즉 생물학적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좋고/나쁜' (gute/schlecht)이라는 술어로 비도덕적 관점에서만 차별적 평가대상이 된다. '나쁜'이라는 평가범주에 속하는 피지배 계층에 속하는 대중이 '좋은'이라는 평가적 범주에 속하는 지배계급의 경멸, 억압, 약탈의 대상이 되고, 그에 비례해서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소외, 원한, 적대감, 복수심 등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때로는 표출된다. 니체는 도덕성에 대한 위와 같은 상반된 관점을 각각 상감도덕(master morality)과 노예도덕(slave morality)이라고 부른다.

그는 도덕적 관점과 범주의 탄생 그리고 지배와 승리는 바로 위와 같은 두 종류의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에서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대항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수·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절묘하게 고안해낸 지적이고 복잡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약자들이 그들의 복수를 위해 이렇게 묘한 꾀를 고안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밖으로 쏟아낼 수 없이 억압되었던 그들 삶의 에너지가 내면으로 집중됨으로써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약자가 자신을 절대적 힘으로 억압해왔던 강자를 정복할 수 있었던 전략이 상감도덕과 노예도덕의 도치 즉 "가치의 변용적 평가"(transvaluation of value)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현재 도덕적으로 대립되는 가치를 지칭하는 선/악(gute/bose)이라는 독일어는 원래 단순히 어원적으로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좋고/나쁜' (gute/schlecht)이라는 비도덕적인 가치를 지칭하는 대립 개념의 변용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이다.

원래 강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 강자의 삶의 방식, 강자의 행복은 불행을 느끼는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실망의 대상, 즉 '좋은' 것인 동시에 선망, 더 나아가서는 복수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보고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것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같이 강자와 약자 간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의 갈등에서 약하고 자유롭지 못해 불행한 대중들은 가치관을 전복·변용해서 불행한 자신들 및 자신들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좋은 즉 '선한' (gute/good) 것이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소수의 강하고 행복한 자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악한' (bose/evil) 것이라는 주장을 조작하여 강자들은 물론 그 자신들, 마침내는 전 세계를 그러한 거짓으로 세뇌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원래 비도덕적 '좋고/나쁜'이라는 대립개념들이 '선한/악한'이라는 도덕적 대립개념으로 변용됨으로써, 과거에 그냥 ' 좋게' 여겼던 엘리트 귀족이나 강한 지배자는 도덕적으로 '악한' 자로 변신하게 되었고, 그냥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했던 약한 피지배자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선한 자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예·약자들의 복수 전략으로서의 이같은 가치전도가 상감(강자)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그 가치에 비추어 상감(강자)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 데 반해서 노예(약자)는 우월감을 갖게 된다.

니체는 노예·천민들에 의한 전도된 위와 같은 "가치표의 총체적 재전도"(revaluation of all values)를 통해 세계의 모습과 도덕적 가치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현세부정적인 세계관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주체적인 창조적 인간으로서 살라고 가르쳐준다. 이런 니체의 세계관, 사회관, 도덕관, 가치관의 한 복판에는 도덕적 족쇄에서 해방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자유롭게 적극적이며 행복한 '초인'의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니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도덕적 족쇄로부터 완전히 풀려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니체의 도덕적 가치의 원천에 대한 해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따라서 보다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도덕적 계보》는 적어도 관념적으로나마 우리를 잠시나마 자유로운 '초인'이 되게 도와준다. **한문**